

# 차례

1. 전체 프로그램 안내, 준비물 등 - 1p
2. 식단표 - 5p
3. 사물놀이란- 9p
4. 풍물의 올바른 명칭, 풍물과 사물놀이 차이점 - 10p
5. 휘모리, 자진모리, 굿거리 - 12p
6. 진풀이, 오방진, 자진가락/ 일체, 육채, 칠채, 인사굿 - 13p
7. 마을 연대 활동과 덕산 탐방 - 15p
8. 덕산의 양채 - 16p
9. 충주댐 건설과 수물 마을 - 22p
10. 우리가 그린 선림 마을 지도 - 26p
11. 증원 문화 탐방- 29p
12. 하늘재, 미륵리사지, 증원고구려비, 중앙탑 - 3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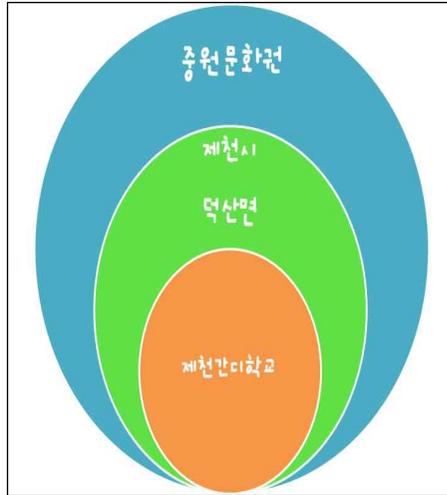
# 2020 1학년 움직이는 학교

## - 간디에서 동지들기 -

인솔 교사: 강미리, 김은지, 김정환

### 1. 풍물 전수

6년 동안 지지고 볶을 20학번 동기들. 입학식과 같은 수많은 행사와 움직이는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들을 동기들과 함께하게 되는 만큼 동기들과 관계, 호흡, 전체 분위기는 간디학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도, 취미도, 좋아하는 것들도 전부 제각각이어서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서로 극복해나가다 보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교육과정들을 척척 같이 해결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어느샌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힘이 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서 ‘관계’를 가장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람 자체에 대한 ‘지능’을 길러 나갈 수 있었기에 제천 간디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물 전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나게 장단 맞추다 보면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가슴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흘린 땀으로 신명나는 가락을 만드는 일. 앞으로 6년을 함께 보내게 될 20학번 친구들이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고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2. 마을 연대 활동과 덕산 탐방

20학번 친구들은 학교를 품고 있는 선고 1리, 선림 마을에서 6년 동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일손도 도와드리며, 마실 다니며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아갈 공간에 대한 이해는 간디에서의 삶을 더욱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노령화, 지방소멸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일원이

될 20학번 친구들이 미래의 삶을 그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중원 문화 탐방

충청북도 중에서도 충주·제천·단양 지역은 ‘중원문화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왜 이곳에 그러한 자부심이 생겼는지, 그러한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유적지 탐방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 준비물

세면도구(친환경 제품), 공책, 필기구, 개인컵, 수건, 샌들(혹은 슬리퍼), 운동화, 우산, 모자, 개인 옷(속옷, 양말 포함), 작업복(일손뚱기, 긴 옷), 물통, 책(아침독서), 두툼한 옷(저녁 활동), 앞치마·머리끈, 윗(어르신들과 놀이)

※ 모둠과 모둠원들

무릎 탁치고 가 (8)	황시우 이예은 (탁희영)	박재윤 홍시현 여동영 박연제 안서경	덕산의 역사
도토리 (7)	정서연 김윤아 유한별	김정헌 정진형 김지훈 (고원일)	덕산의 꿈
모여봐요 간디의 숲 (8)	손결 (공호빈) 이채령 신호진	유재경 원종현 조예준 최지훈	덕산의 농업

※ 하루 일정

- 07:00 전체기상
- 07:30~45 아침청소 (생활관)
- 08:00 아침식사
- 08:30~08:45 아침청소 (학교)
- 08:45~09:30 아침독서 및 아침열기
- 09:30 오전 활동 시작
- 12:00 점심식사
- 14:00 오후 활동 시작
- 17:00 하루 나누기
- 18:00 저녁식사
- 18:30~20:30 일지 쓰기 및 모둠별 회의
- 20:30 간식 먹고 생활관으로
- 10:00 취침

※세부 일정 및 활동 내용

6(토)		7(일)		8(월)	
17:00	학교 입고 -발열 체크 -핸드폰 수거	09:30	공동체 놀이	09:30	연탄 봉사
18:30	움직이는 학교 안내 -준비물 확인 -생활 규칙 확인 -마음 나누기	14:00	면담 무빙 고민 나누기 간식 만들기	13:00	자기소개 준비 -품물 경험 -기대되는 것 -하고 싶은 말
19:00	‘조화롭다는 것은?’ 영화 <시스터 액트> -중간에 간식	19:00	공동체 만다라	14:00	사부님과 만남
21:00	일지 쓰기 -무빙 마음 가짐 -영화 소감	22:00	일지 쓰기 -가장 우려되는 것 -가장 기대되는 것	18:30	하루 나누기
				19:30	일지 쓰기
22:00	취침	23:00	취침	22:00	취침

13(토)		14(일)		15(월)	
15:00	품물 소감문 작성 -품물 전체 소감 -‘품물과 간디학교’	10:00	기상	09:30	‘간디에서 동지들 기’ 안내 -모듬별 활동 점검
19:00	하루 나누기 -품물 소감	11:00	아침	14:00	노인요양 활동 위 크샵
22:00	품물 뒷풀이 파티	19:00	전체 모임	19:00	노인요양보호란? -박연화 요양사님
24:00	취침	22:00	취침	21:00	일지 쓰기 -오늘 배운 것은
				23:00	취침

16(화)~18(목)		19(금)		20(토)	
09:30	모듬별 오전 활동	09:30	일손 돕기 간식당	09:30	간식당 준비
				11:30	품물 발표
14:30	모듬별 오후 활동	14:30	모듬별 발표 준비 간식당 준비	14:30	품물 발표 준비
17:00	하루 나누기	17:00	하루 나누기	17:00	품물 전수 발표
18:30	일지 쓰기 모듬별 회의	18:30	일지 쓰기 모듬별 발표 준비	20:00	모듬별 발표 준비 일지 쓰기
22:00	취침	22:00	취침	23:00	취침

21(일)		22(월)		23(화)	
10:00	모듬별 무빙 발표	11:00	아점	09:30	중원 문화 탐방 -미륵리 사지 -하늘재
11:00	물놀이	12:30	모듬별 간담회 마음 나누기	12:30	송계 계곡 점심
12:30	점심	17:00	저녁 식사	14:00	중원 문화 탐방 -중원고구려비 -중앙탑
15:30	귀교 부모님과 작별	18:30	하루 나누기 일지 쓰기	18:30	충주 저녁
19:00	하루 나누기	22:00	취침	20:00	캠프 파이어 마음 나누기
20:30	일지 쓰기			23:00	취침
23:00	취침				

# 제천간디학교 1학년 무빙 식단표(6/6~14일)

구분	행복을 여는 아침	정성이 가득한 점심	건강을 생각하는 저녁	간식
06월 06일 토요일			오므라이스  유부장국 진미채볶음 김치	초코웨하스  사과즙
06월 07일 일요일	간장계란밥  미역국 어묵볶음 김치	잡곡밥  콩나물국 생선까스/타르타 클 멸치견과볶음 김치	잡곡밥  동태알탕 고사리나물 마늘쫄면새우볶 음 김치	핫도그  발효액
06월 08일 월요일	잡곡밥  물만두국 콩나물무침 계란말이/김치	잡곡밥  두부새우강정 과일샐러드 아삭이된장무침/ 김치	잡곡밥  콩나물냉채 소세지야채볶음 말린호박나물/김 치	주방쌤의 손맛가득  떡볶이
06월 09일 화요일	잡곡밥 쇠고기당면무국 메추리알곤약장 조림 가지전 김치	잡곡밥 모듬쌈채소 상추겉절이 오삼불고기 김치	잡곡밥 어묵탕 오이무침 삼치구이 김치	옥수수과자  미숫가루
06월 10일	잡곡밥	잡곡밥	잡곡밥	

수요일	오징어무국 계란찜 멸치견과볶음 김치	감자두부된장국 순대야채볶음 브로컬리무침 김치	김치수제비국 해물동그랑땡 감자조림 김치	누리빵 사과즙
6/11일 목요일	모닝쌀빵 크림스프 스크램블에그 양상추샐러드	라면 김밥 단무지 참외/김치	해물볶음밥 유부국 두부부침 마늘쫀볶음/김치	군만두 사과즙
06월 12일 금요일	잡곡밥 부대찌개 양배추찜 새송이야채볶음 김치	비빔밥 어묵국 계란후라이 김치 수박	잡곡밥 두부된장국 두릅전/초장 계란말이 김치	찹쌀도너츠 식혜
06월 13일 토요일	잡곡밥 홍합미역국 진미채볶음 콩나물무침/김치	골뱅이쫄면 계란국 단무지 토마토	냉면 찐만두 단무지 방울토마토	누리빵 샌드위치 매실에이드
06월 14일 일요일	휴식	아점 모닝빵 씨리얼/우유 오디잼/딸기잼	외식하는 날 (지역 식당)	덕산에서 사먹는 날
06월 15일	잡곡밥 황태해장국 시금치나물 김 /김치	잡곡밥 참치김치찌개 명란계란찜 비름나물/참외	잡곡밥 유부우동국 비빔만두 꼬들단무지	순대 포도즙

제천간디학교 1학년 무빙 식단표(6/16~24일)

구분	행복을 여는 아침	정성이 가득한 점심	건강을 생각하는 저녁	간식
6월 16일 화요일	감자전 조 모닝빵 오디잼/딸기잼	<간식당> 비빔밥 콩나물국 계란후라이 수박	부모님 찬스♡	한살림 과자
6월 17일 수요일	무탁 조 계란밥 밀반찬 김치	<간식당> 잡곡밥 홍합미역국 불고기 계란말이/김치	부모님 찬스♡	소떡소떡
6월 18일 목요일	간썬 조 감자샐러드샌드위치	<간식당> 콩국수 깍두기 참외	부모님 찬스♡	윤주쌈 샌드위치
06월 19일 금요일	감자전 조 참치 주먹밥	<간식당> 묵밥 배추전 김치 방울 토마토	부모님 찬스♡	딸기머핀 매실음료

06월 20일 토요일	무탁 조 잡곡밥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간식당> 전복삼계탕 애호박전 깍두기 수박	움직이는 학교 발표 부모님들께서 준비:)	수박
06월 21일 일요일	아침 없음	부모님 찬스♡ 라면 / 국수 수박 (야외에서)	부모님 찬스♡	떡 미숫가루
06월 22일 월요일	휴식	☆쌤들이 준비☆ 해물볶음우동 미소된장국 단무지무침	☆쌤들이 준비☆ 간디 두끼	누리빵 포도즙
6월 23일 화요일	간쑤 조 김치볶음밥 콩나물무침	매식	매식	캠프파이어 떡.소시지 수박
06월 24일 수요일	<시작이반> 콩나물밥 에그스크램블 양념장 참외	<시작이반> 샌드위치	집으로 gogo	

## 사 물 놀 이

풍물에 있어서 사물이란 쇠, 징, 장구, 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사물(범종, 운판, 법고, 목어)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남사당패의 공연 중에서 풍물이 가장 간단한 짜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1970년대 말에 ‘사물놀이패’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쓰이게 된 용어이며 풍물이 갖고 있는 마을굿이나 대동굿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고도로 무대화된 네 가지 타악기의 연주라고 말할 수 있다.

풍물과 사물놀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주장소 : 풍물은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서 하는데 비해 사물놀이는 좁은 공간이나 무대에서도 가능하다.
- ② 연주형태 : 풍물은 일어서서 선반으로 하고 사물놀이는 앉아서 앉은반으로 한다.
- ③ 연주시간 : 풍물은 한정없이 긴데 사물놀이는 대략 한 곡당 10-15분 정도로 짜여진다.
- ④ 가락의 짜임새 : 맺는 가락과 푸는 가락이 반복 교체가 되는 풍물에 비해 사물놀이는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이행되는 점층적 가속의 틀을 갖고 있다.
- ⑤ 진풀이 : 풍물은 즉흥성을 살릴 수 있는데 반해 사물놀이는 작품의 틀이 정해져 있다.
- ⑥ 연주인원 : 인원이 많을수록 한껏 흥겨운 풍물에 비해 사물놀이는 보통 4-6명 정도로 소규모에서 가능하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사물놀이는 풍물굿을 실내 연주용으로 변화시켜 전통을 긍정적으로 계승한 갈래임을 알 수 있다. 풍물을 창조적으로 이어받은 사물놀이는 일반 사람들에게 풍물의 장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뛰어난 기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좋은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옛날 마을굿이 지니고 있던 대동놀이적인 면을 살리고 관객과 공연자의 거리를 좁혀 가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 풍물의 올바른 명칭

풍물굿은 다섯 악기( 쇠, 징, 장구, 북, 소고 )를 주로 치며, 소고를 들고 다양한 춤을 추는 기능과 극적 짜임을 맡는 잡색놀이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적인 놀이 형태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말이 '농악'이며 최근에는 사물놀이패가 생기면서 '사물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옛날 마을에서는 지역과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굿, 매구, 매구굿, 풍물, 풍장, 두레, 걸궁, 걸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 1) 농악

1870년대까지 판소리 춘향가에서는 '두레굿'이라 쓰였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농업 수탈정책의 하나인 농업 장려운동으로 원각사의 협률사라는 단체에서 농악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농악이 글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36년 총독부에서 펴낸 '부락제'라는 책에서였으며, 이로 미루어볼 때 농악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쓰인 것으로 보인다. 농악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농민의 음악'이라 하여 농사꾼이 하는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원래 풍물굿이 농경사회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 스스로 농악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었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써 일본의 탈놀이 농악의 발음인 '노가꾸'를 본떠서 농악이라는 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주의는 '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해야만 굿판을 열수 있게 했다. 8.15해방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국악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농악이라 부르게 되었다.

### 2) 사물놀이

풍물에 있어서 사물이란 쇠, 징, 장구, 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사물(범종, 운판, 법고, 목어)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남사당패의 연희중에서 풍물이 가장 간단한 짜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

1970년대 말 '사물놀이패'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쓰이게 된 용어이며 풍물이 갖고 있는 마을굿이나 대동굿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고도의 무대화된 네가지 타악기의 연주라고 말할수 있다.

### 3) 풍장

농사일에 많이 쓰이는 말로 김매기할 때 이루어지는 풍물놀이를 가리킨다. 특히

만두레(벼농사는 김매기를 보통 3번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것을 말함)가 끝나는 날 농사가 제일 잘 된집 머슴을 소등에 태워 위로하며 노는 것을 농장원, 질 꼬냉이라고 한다.

#### 4) 두레

원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마을단위 일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특히 김매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풍물이 공동체적 놀이로써 일두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물을 두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 5) 굿

모든 지방에 걸쳐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 '굿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굿의 의미는 원래 '모인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모여서 공동체 안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풀어가며, 공동체적 바람을 집단적으로 빌며 집단적 신명으로 끌어 올려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무속에서의 신앙적 뜻만을 가리키는 흐름이 있다.

#### 6) 매구, 매굿, 매귀

땅 밑에 있는 나쁜 귀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묻고 밟는다는 뜻으로 보통 석달 그믐 날 밤에 하는 풍물놀이를 매굿이라 한다.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풍물을 일컫거나 팽과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7) 풍물, 풍물굿

주로 경기, 충청도 지방에서 쓰이는 말로 모내기할 때 간단한 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신에게 소원을 푼다는 뜻이나, 농사의 풍년을 바란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가와 문화모임들이 농악이란 말 대신에 풍물 또는 풍물굿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

풍물이라는 말은 요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 ※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의 차이점

안서경 · 여동영

\*풍물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놀던 놀이다.

북, 장구, 징, 팽과리. 나발, 태평소를 치거나 불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풍물이다  
풍물은 마을에서 춤추고 뛰거나 걸어 다니면서 한다. 풍물은 야외에서 한다.

\*사물놀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사물놀이이다.

사물놀이는 1978년 김덕수 등 네 명의 예인이 무대 예술로 각색한 것을 말합니다. 팽과리, 징, 북, 장구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놀이라는 의미에서 사물놀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은 주로 실내에서 합니다.

※ 휘모리, 자진모리, 굿거리

탁희영

- 휘모리

- 분박이란 1박자를 나눈 것 - 1박자를 둘로 나누면 2분박, 셋으로 나누면 3분박
- 산조란 민속악기에 속하는 악기 독주 형태의 하나

휘모리장단은 판소리에서는 빠른 2분박 4박자를 말하고, 산조에서는 빠른 3분박 4박자이다.

+ 휘모리란 자진모리장단보다 빠른 장단이다.

부호	⓪				○		○	
장구	덩		덕	덕	쿵	덕	쿵	
입장단								

-휘모리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lu5UHZh6pQ8>

02:36~02:46 까지

-자진모리

약간 빠른 4박으로 구성되는데 판소리에서 어떤 일을 길게 얘기하거나 극적이고 긴박한 장면에서 쓰인다.

+ 자진모리란 중중모리보다는 빠르고 휘모리보다는 느린 장단이다.

⓪			○			○			○	
덩		덕	쿵	덕		쿵		덕	쿵	덕

-자진모리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lu5UHZh6pQ8>

0:04~1:34 까지

-굿거리

주로 탈춤이나 무용의 반주로 쓰이고 12/8박자이다.

+굿거리 장단을 빠르게 연주하면 자진 굿거리장단이 된다.

쇠	깡		지깡	깡	개개	개개	깡		지깡	깡	개개	개개
징	징						(징)					
장구	덩		기덕	콩	더러	러러	콩		기덕	콩	더러	러러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부호	⓪		i	○			○		i	○		
장구 입장단	덩		기덕	콩	더러	러러	콩		기덕	콩	더러	러러

<https://www.youtube.com/watch?v=U5NVagmJpHI>

0:09~-0:29 까지

※ 진풀이, 오방진, 자진가락

김정현

진풀이 뜻 : 농악에서 탁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시종일관 일정하게 정해진 동작선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작선 만들기의 방법.

오방진 뜻 : 오방진놀이(풍물놀이 판굿에서, 오방진을 지었다 풀었다 하는 놀이).

자진가락 뜻 : 빠르고 잣게 넘어가는 가락.

※ 일채, 육채, 칠채, 인사굿

조예준

- 일채

요약: 전라도 좌도농악(左道農樂)에서 쓰이는 쇠가락의 하나.

일채는 자진삼채 · 외마치질굿 · 덩덕궁이 · 두마치 · 세산조시 · 느린삼채 · 오채질굿과

함께 쓰인 쇠가락이다.

- 육채

요약 ① 전라도 좌도농악(左道農樂)에서 쓰이는 쇠가락의 하나.

② 농악장단(農樂長短)의 하나.

① 전라도 좌도농악(左道農樂)에서 쓰이는 쇠가락의 하나. 육채는 자진삼채·외마치 질굿·덩덕궁이·두마치·세산조시·느린삼채·오채질굿과 함께 쓰인 쇠가락이다.

② 농악장단(農樂長短)의 하나. 육채와 칠채는 두 마루를 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육채의 가락은 엇중모리장단과 비슷하다.

- 칠채

칠채가락은 길군악칠채나 마당칠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농악에서 행진에 쓰이는 쇠가락의 하나인데, 이 쇠가락은 경기도 농악의 독특한 가락이며 경기도, 강원도 영서, 충청도 북부 지방에 두루 쓰인다. 주로 행진할 때 친다 하여 길군악이라 부르며 한 장단에 징을 일곱 번 쳐서 칠채라 한다. 행진 음악과 판굿에서 오방진, 멍석말이에 쓰이며 매우 씩씩한 느낌을 준다.

덧뵈기에서는 첫째마당 마당씻이에서 장쇠와 꺾쇠가 지금까지 닦아온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장면 등에서 사용된다. 땅재주 연행에서 칠채가락은 기예의 시작과 끝부분에서만 연주된다.

- 인사굿

요약: 농악놀이의 한 가지.

농악대원들이 상쇠의 뒤를 이어서 일렬종대로 놀이판에 따라나와 둥글게 원을 그린 다음 둘러선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놀이가 인사굿이다.

경기농악(京畿農樂)이나 남사당패(男社黨牌)의 판굿에서 인사굿은 맨 처음에 연행되지만, 호남농악(湖南農樂)의 우도(右道)굿에서는 잡색놀이·노래굿 다음 즉 여러 놀이 중간에서 연행되고 있다.

마을 연대활동과  
덕산 탐방

1. 덕산면

제천시 9동 1읍 7면의 하나, 충청북도의 북부, 제천시의 남쪽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서 동쪽은 단양군, 서쪽은 한수면, 남쪽은 소백산맥의 계림령을 경계로 경북 문경시, 북쪽은 수산면이 접하고 있다. 제천시까지는 육로로 55km이고 해발고도는 280m이며, 남서쪽은 국립공원 월악산이 위치하며 용하구곡의 자연경관이 빼어나며,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문화관광의 고을로 자리잡고 있다.

고구려 시대 국원경 관할의 사열이현(沙熱伊縣)에 속해 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덕산향(德山鄉)이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757)에는 청풍(淸風)으로 개칭 내제군(奈堤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현종(1018)때에는 태원군(太原郡:지금의 충주)에 속하였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고려 때 덕산향(德山鄉)이 있었으므로 제천군 덕산면(德山面)이라 하여 선림(仙林), 도기(道基), 탄지(炭枝), 수촌(水村), 적곡(赤谷), 곡현(曲峴), 삼전(森田), 복평(浹坪), 송계(松界), 성내(城內)의 10개 리를 관할하다가, 그 뒤 신리(新里), 만도(晩道), 고목(古木), 성암(城岩)의 4 개 동리를 더두어 14개 리로 되었으며, 복평, 송계의 2개 리는 한수면(寒水面)에 넘겨주고, 청풍군(淸風郡) 원서면(遠西面)의 월악리(月岳里)를 편입하여 신현(新峴), 도전(道田), 수곡(水谷), 선고(仙古), 성암(城岩), 도기(道基), 수산(壽山), 월악(月岳)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수곡리를 수산에 넘겨주어 7개리가 되었다.

1980년 4월 1일 제천읍의 시승격에 따라 제원군에 속하게 되었다가 1991년 제천군 덕산면이 되고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에 따라 제천시 덕산면으로 되었다. 중앙 부에는 하설산(1,028), 어래산(815), 다량산(591)이 솟아있고 서부에는 본면에서 으뜸가는 명산으로 웅장기괴하여 산전체가 그대로 절경인 월악산(1162)이 우뚝 서있고 동 부에는 아이산, 남부에는 대의산, 문수산(1,162)이 솟아 있으며 하천은 성천과 광천이 흐르고 있다.

2020년 현재 1,181 가구에 2,223명이 거주하고 있다.

## 2. 선고리

[선고][리]본래 충주군(忠州郡) 덕산면(德山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선림리의 일부와 고목리(古木里)를 병합하여 선고리라 해서 제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4월 1일 제천시 승격에 따라 제원군 덕산면 선고리로 부르다가 1991년 제천군 덕산면이 되고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에 따라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로 됨. 2020년 현재 80가구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 3. 덕산의 양채

고원일, 유재경



-브로콜리와 치커리

브로콜리는 덕산의 많은 곳에서 재배한다. 치커리는 맛이 쌉사름하여 쌈이나 무침에 주로 이용된다.



**-비트**

비트는 속안이 빨가여 빨간무라고 불린다.



**-콜라비**

양배추에서 분화된 채소로 즐기는 샐러드로, 잎은 쌈채소로 이용된다.



**-적양배추**

예쁜 빛깔 때문에 샐러드나 장식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양상추**

쌈과 샐러드로 주로 이용된다.

양채를 키우는 이유

돈을 벌기위해 양채를 키운다. / 지형이 좋아서 양채를 키운다.

## 한해 매출 28억원, 제천양채영농조합



(제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양채류 재배로 한해 2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신품종인 사보이 양배추(일명 곰보배추) 재배에 성공한 충북 제천시 덕산면 제천양채영농조합법인 이은일 대표가 14일 양배추를 들어보이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양채류 재배로 한해 2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산골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월악산 줄기에 자리한 충북 제천시 덕산·수산면의 주민 25명으로 구성된 제천양채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은일)은 2010년 결성됐다. 양채류는 서양 채소의 약칭으로 국내에서 주로 샐러드용으로 재배하는 결구상추, 셀러리, 브로콜리, 꽃양배추, 케일, 파슬리 등이다.

제천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중공업, 신협을 거쳐 2001년 국내 최초로 브로

콜리 대량 생산에 성공한 이은일(54) 대표는 국내 브로콜리 계에서는 '대부'로 통한다. 덕산면이 고향인 이 대표는 1979년 농고를 졸업하고,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등에서 근무하다 1987년 고향인 제천으로 귀향했다.

젊은 나이에 타지에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향에 다시 왔지만 딱히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당시 면 소재지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금융 일도 배우고 농사도 짓고 싶어 입사지원을 했다. 입사 자격은 농약판매 자격증이 있어야 했다.

고추 농사를 하며 틈틈이 공부해 1988년 3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약 판매 자격증을 취득해 신협에 입사했다. 입사 후 농약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업무까지 마스터 하고 이사자리까지 오르는 데 11년이 걸렸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후배들을 위해 1998년 8월 자진해 이사직을 내놓고 명예퇴직 했다.

퇴직 후 고추농사를 하면서 면 소재지에 작은 농약사를 차려 직접 운영에 나섰다. 농약사를 운영하며 그는 고추 농사만으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 웰빙시대에 새로운 작물을 선점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또 국민의 식생활이 바뀌는 것도 파악했다. 그는 당시 국내에 파견 나온 네덜란드의 한 종묘 회사의 문을 두드렸고, 양채 종자의 국내 배급 등을 맡는 독점권을 따냈다. 양채의 특성상 제천이 준고냉지역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최고의 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고, 한 해 2기작이 가능한 최고의 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험재배 등을 거쳐 2002년부터 본격적인 브로콜리 농사를 지었다. 처음 30가구가 공동으로 7ha의 면적에서 브로콜리를 생산하게 됐다. 당시 8kg 한 상자에 6~7만 원을 받았고, 내륙지역에서는 제천이 브로콜리 주산지였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대표에게 브로콜리 종자를 얻고, 재배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에는 일본에 수출도 했다. 2010년에는 주민 25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20ha의 면적에서 브로콜리 등을 재배해 대형마트와 가락동 시장에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만 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신종인 사보이 양배추(일명 곰보배추) 재배에 성공해 최근 대형 마트에 6.2t을 납품하고, 2년간 독점계약도 따냈다. 오는 10월 12만포기(120t, 1억 6천만 원)의 사보이 양배추를 납품기로 이미 계약, 이달 초 파종에 들어갔다.

프랑스 남동부 사보이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이 양배추는 보통 양배추보다 단단해 식감이 좋고, 가열하면 더욱 맛이 나 양배추를과 수프 등과 같은 삶은 요리, 볶음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양채전문가를 꿈꾸는 이 대표는 "앞으로 제천 양채류가 일본과 대만에 수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4-07-14 07:27 노승혁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천시 덕산면에서 생산하는 양채가 대만 수출길에 오른다.

18일 남제천 농협에 따르면 덕산면에서 양채를 전문적으로 경작하는 채마밭 영농조합법인(대표 정대교)이 이달부터 수확하는 양채를 대만으로 수출한다.

수출 대행업체와 남제천농협을 통해 대만으로 첫 수출하는 덕산 양채는 약 10톤이며 연간 100만 달러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청과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채는 10kg 당 약 60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수출에서는 10kg 당 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이번 대만 수출은 양채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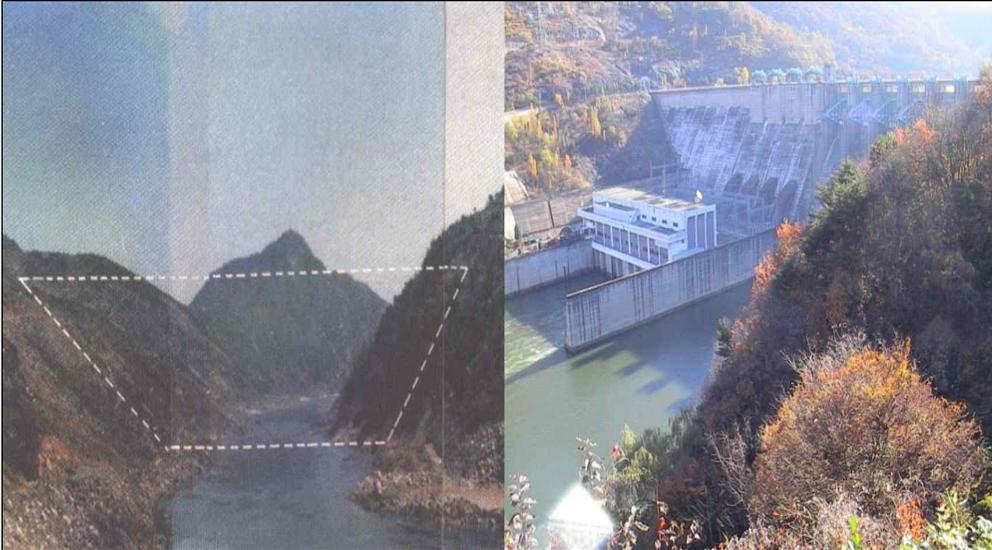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잘 되는 석회암 사질 토양인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양 채는 비타민이 풍부해 위궤양에 효과가 있고 노화방지와 수은중독 방지, 간 기능 회복 등의 역할을 하는 셀레늄이 많아 대표적인 건강채소로 꼽힌다.

류승인 남제천농협 조합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채의 뛰어난 품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 7.18 충청신문(<http://www.dailycc.net>)

#### 4. 충주댐 건설과 수물마을

손결, 김윤아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다목적댐인 충주댐은 충주시 증민동과 동량면 조동리를 잇는 댐으로 1978년 5월에 건설을 시작해서 1985년 10월 완공되었다. 남한강을 막아 수자원 확보 및 홍수피해방지,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충주댐의 건설로 충주시 충주댐 건설로 인해 옛 단양읍과 청풍 문화 단지 및 많은 농경지와 주택 등이 수몰되었고, 제천시, 단양군 일대가 수몰되었다. 특히 단양은 단양읍 전체가 수몰되었는데 그로 인해 신단양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충주댐이 생기고 나서 주변 지역에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안개란 대기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안개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인데, 댐은 잘 알다시피 거대한 호수다. 즉 그 지역에 거대한 수증기 공급원이 생긴다는 말.

호수의 수면 부근에는 호수면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많아 항상 높은 습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안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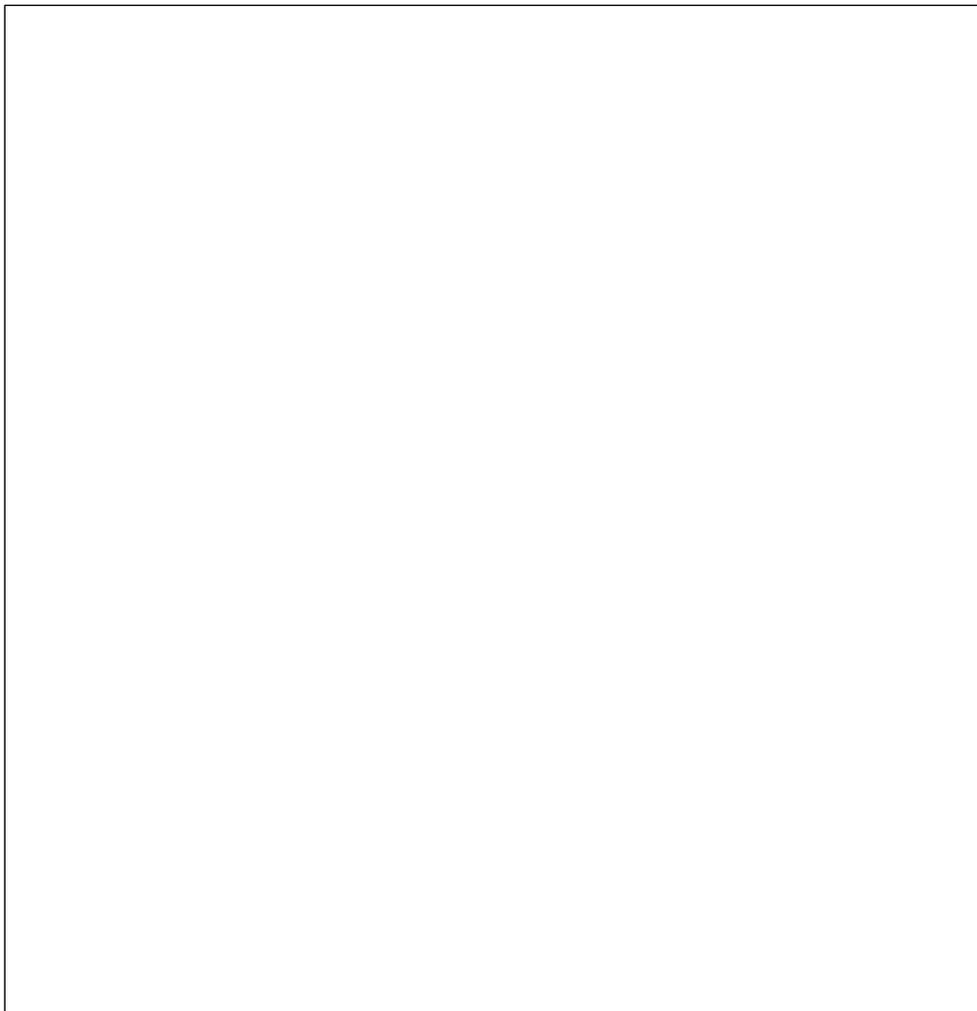
안개가 발생하는 데에는 공기중의 습도가 매우 중요한데 충주댐이 생기기 전에는 쉬지않고 흘러가던 강물이 댐이 생긴 이후에는 중간에 한참 머물다가 가기 때문에 충주지역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안개가 많이 발생

한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은 가끔 기록적인 가뭄이 오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2015년에 1994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충주호의 수몰 마을이 드러났는데, 실향민들이 이 때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처럼 충주댐은 국가 발전과 사람들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지만, 그 지역에 살던 실향민들에겐 고향이 사라졌다는 아픔도 안겨주었다.

- 충주MBC '충주댐 30년'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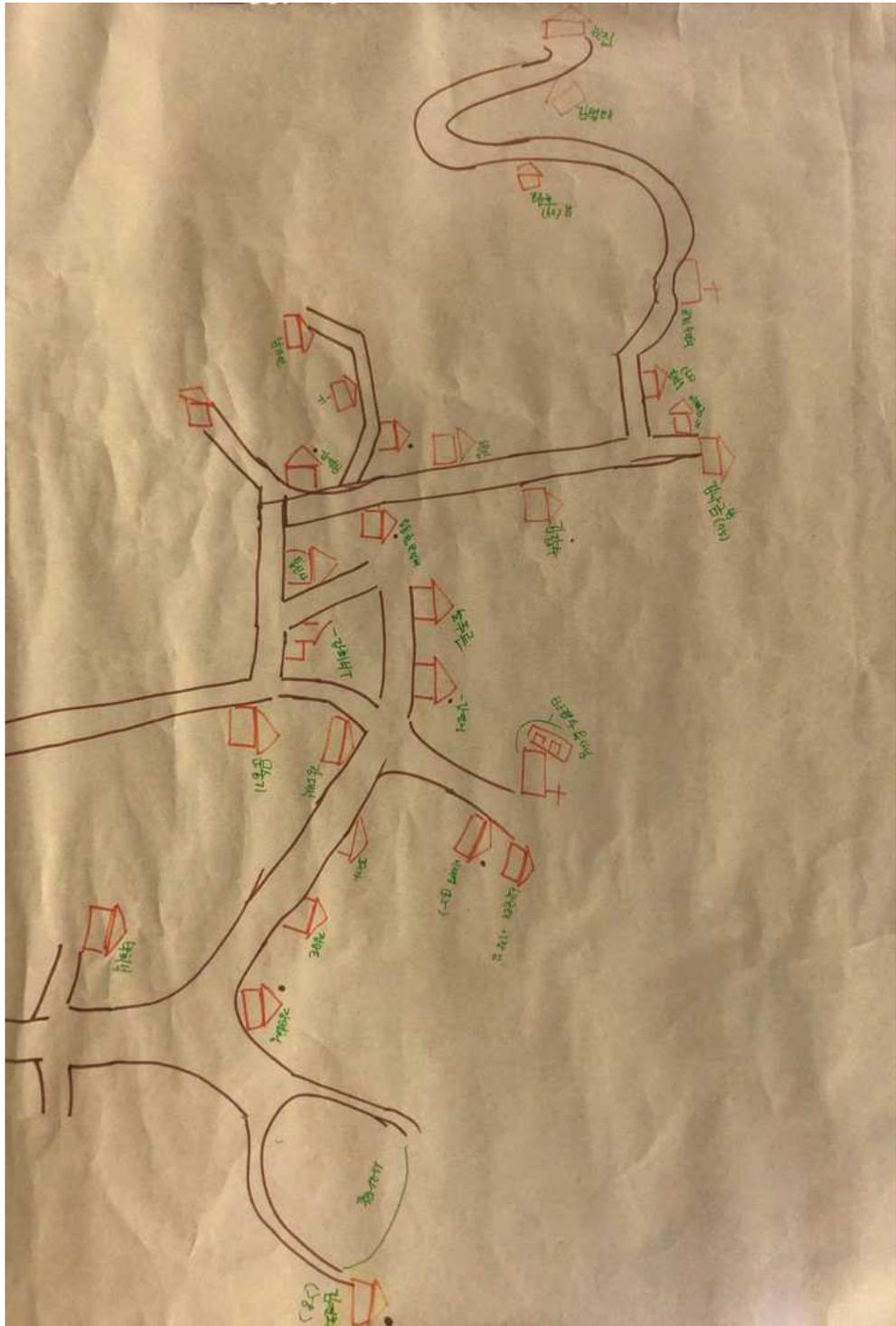












## 중원 문화 탐방

### 1. 중원문화탐방

#### 1) 중원 문화란?

##### (1)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

중원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북한에서 행정구역을 바꿔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행정구역을 추가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8개의 '도'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그 도들의 중심 지역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이름 지었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8개 도 이름과 이름을 딴 지역 이름을 써 보세요.

- |   |   |
|---|---|
| ① | ② |
| ③ | ④ |
| ⑤ | ⑥ |
| ⑦ | ⑧ |

다음 지도에 각 도 이름과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 이름을 표시해보세요.



문제1) 위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충청북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알겠지요?

그런데 가끔 일기예보나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없는 지역이름들이 나와요.

영서 지방이라던가, 호남지방이라던가 ……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이 지역 이름들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걸까요?

다음 지역 이름들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적어보세요.

- ① 관북
- ② 관서
- ③ 관동
- ④ 영동 · 영서
- ⑤ 기호
- ⑥ 호서
- ⑦ 호남
- ⑧ 영남

## (2) 중원 문화

중원(中原)은 가운데를 뜻하는‘中’, 어떤 것의 뿌리를 뜻하는‘原’ 으로 이루어진 말로 어떤 지역의 중앙을 이야기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충북에서 안에서도 충주 일대를 우리나라의 가운데라며 중원 지역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실제 1994년, 충주에 통합되기 전까지 충청북도 중원군이 있었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북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긴 하지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지도를 놓고 거리를 정확히 재고 나서 충북과 충주를 우리나라의 가운데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정중앙을 찍는다고 하면 강원도 양구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충주지역을 ‘중원’이라고 불렀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힌트 나갑니다.

여러분은 우리학교의‘중원’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까요?

테니스 장 옆으로 들어오는 학교 입구부터 소강당까지, 학교 감자 밭에서 분리수거대까지 앞 · 뒤, 좌 · 우를 정확히 재서 꼽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현관 부근을 꼽을 겁니다. 학교 현관은 우리 학교 생활공간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동장 · 화장실 · 학교 건물과 연결되는 지점이니까요.

자! 이제 충주 지역을 ‘중원’이라고 불러 왔던 이유가 짐작이 가지요?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지역과 연결되는 지점이 충주 지역

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친구들이 있을 꺼예요.

‘학교에서 충주 나가는 길에 보면 무슨 강하고 산 밖에 없던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연결된다는 거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충주 지역이 ‘중원’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넘는 고갯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강은 요즘에 운송 통로로 사용하지 않지만 자동차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강을 통해 이동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강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럼 ‘백두대간을 넘는 고갯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밑에서 더 알아보시다.

### (3)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기울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러 우리나라 땅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의 옛 이름. 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오네요. 하지만 백두대간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지리 구분법’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리 구분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 학자가 산 속에 있는 광물들을 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한 ‘지리 구분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 태백산맥, 소백산맥과 같은 용어들은 다 일본 학자가 분류한 ‘지리 구분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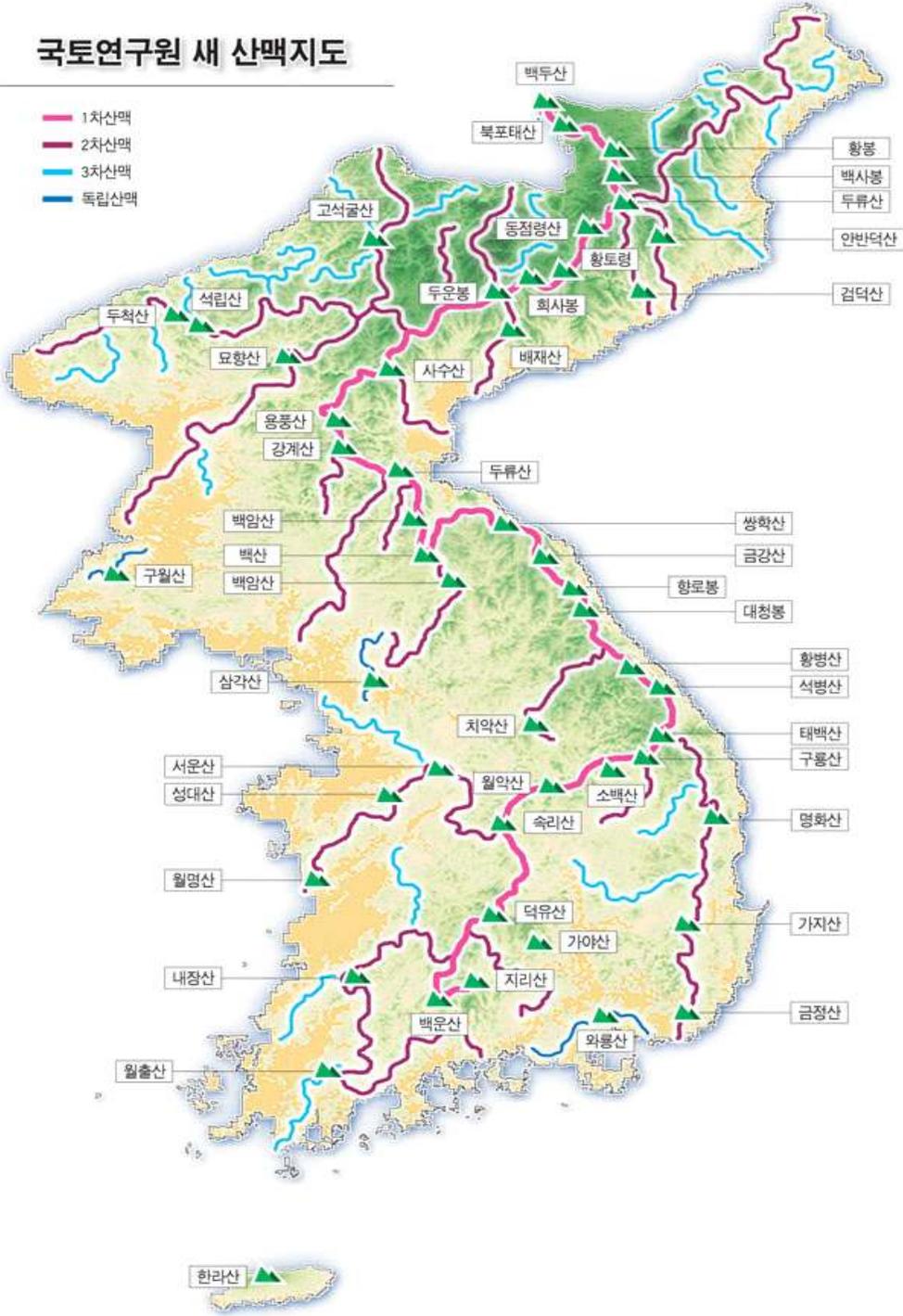
하지만 일본학자가 분류한 산맥들 중에는 실제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산맥이라면 산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강으로 끊기고, 산맥으로 표시된 지점이 논이나 밭 보다 더 낮은 곳도 나와요. 즉 일본학자가 분류한 ‘지리 구분법’은 틀렸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진 환경 보호 단체나 산악회, 지리학자들은 우리가 예부터 쓰던 백두대간을 정식 용어로 교과서 같은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이 분류한 지리 구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줄기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볼까요?

# 국토연구원 새 산맥지도

- 1차산맥
- 2차산맥
- 3차산맥
- 독립산맥



우리나라 산줄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나요?

아직 안 들어 온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북에서 남으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가르고 있어요. 때문에 강들은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서해로 나가지요. 그래서 강을 따라 형성되는 평야는 대부분은 우리나라 중앙과 서쪽에 치우쳐 있지요.

또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려면 백두대간이라는 험준한 산줄기를 넘어야 해요.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지역인 서울로 가려면 경상도 사람들과 영동 지방 사람들은 백두대간을 넘어가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각 지역의 기후부터 농사짓는 작물까지도 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때문에 각 지역의 기후, 이에 따른 가옥 형태나 의복, 음식, 생활 등 모든 '문화'가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나라 지역 구분 기억나시나요? 영동과 영서, 영남 지역의 이름도 백두대간을 넘는 령(嶺)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요. 이처럼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백두대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 (4) 우리 옛길

각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길'도 백두대간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지요.

예부터 길은 세금을 걷거나, 군사를 이동시키거나, 사신을 보내거나, 왕의 명령을 각 지역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나라에 필요한 길들을 '대로'로 지정하고 관리했습니다. 도로의 폭을 일정하게 정해 정비했으며, 돌무덤, 장승과 같은 표지도 세우고 관·역·원과 같은 숙박시설도 만들었지요.

고갯길은 우리말로 재, 한문으로 령(嶺)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간식, 좋은 운동화, 좋은 물통, 좋은 옷을 가지고도 산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백두대간을 넘으려면 백두대간 중 가장 낮고 올라가기 편한 곳으로 넘었겠지요? 그곳이 바로 고갯길입니다.

이러한 고갯길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전쟁 시에는 외적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고갯길 주변에는 산성을 쌓기도 하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절과 같은 종교시설도 짓고, 나라의 관리들이 지나가면서 쉬 수 있는 관·역·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충북에는 추풍령, 이화령, 조령, 계립령, 죽령이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해주었으며 지금도 도로가 다 이런 옛 고갯길 밑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고개들의 위치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지를 적고 대략적인 고갯길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보세요.

# 백두대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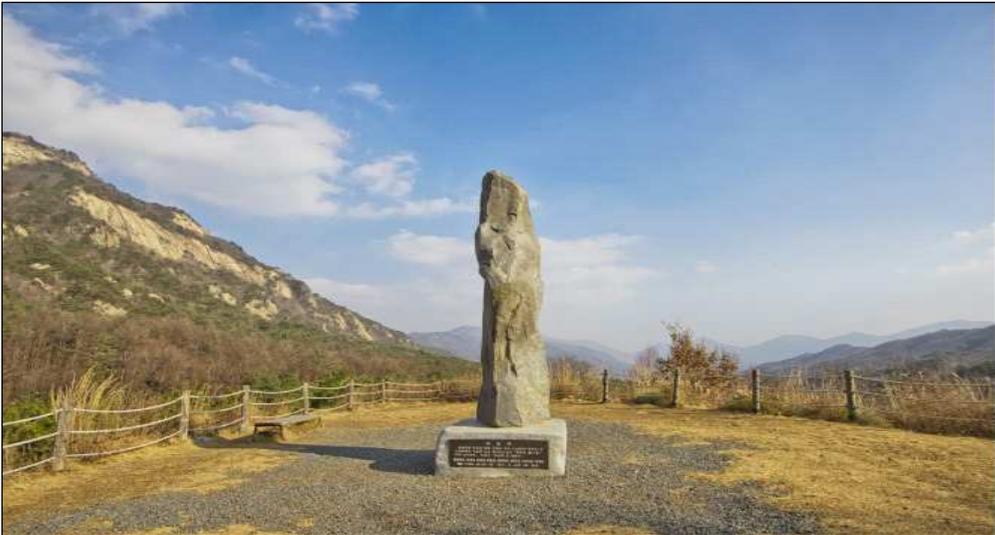
©EnCyber.com

※ 참고 조선시대 대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충북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연결해주는 지역입니다. 예부터 경상도는 신라시대의 수도, 경주가 있어 지금의 서울 지역에서 중국의 문화가 들어와 충북을 거쳐 경주까지 흘러 들어갔으며, 조선시대에는 영남사림(士林, '선비 사'에 '수풀 림')이라는 막강한 선비 집단들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수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경상도에서 충북을 지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길이 조선시대 영남대로(위 지도 참고)로 정비되었고,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들도 이 길로 지나갔습니다.

(5) 하늘재가 무엇인가?

홍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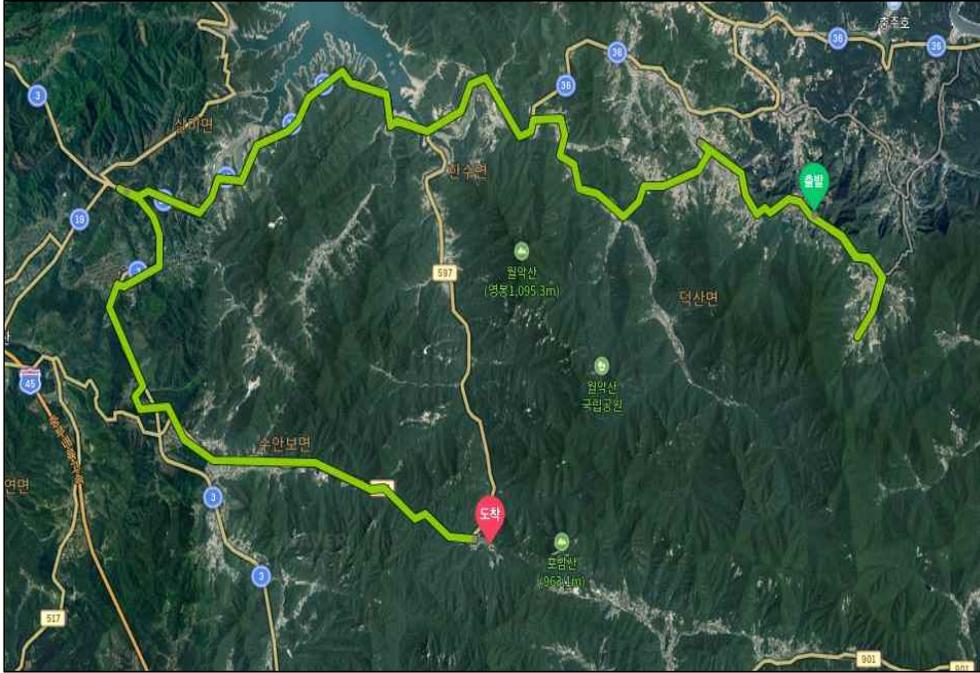
하늘재는 삼국시대 신라 아달라왕이 156년에 전쟁을 위해 뚫은 길이다. 한강과 낙동강 사이 백두대간을 넘는 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신라의 온달과 연개소문이 하늘재를 두고 싸웠고, 고려시대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피신할 때 이곳을 지나기도 하였다. 신라가 멸망할때 이 곳을 넘었다는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옛날엔 계립령, 대원령, 지릅재 등으로 불렸다고 하나 현재는 '하늘재'로 불린다고 한다.

하늘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이며 하늘재라는 이름엔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하늘재 가는 길**

**출발** : 제천간디학교 **도착** : 하늘재 거리 : 29.2km 예상 소요 시간 : 차-34분, 도보-6시간 58분



《메모》

## (6) 미륵리사지

공효빈

미륵리의 미륵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돌탑과 돌로만든 모형이 남아 있다. 돌로 세긴 불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동굴의 크기는 높이 6m의 돌로 쌓은 벽을 큰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불상을 보호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이 돌벽 위에 나무로 뼈대를 만든 건물이 있었던 듯하나 없어졌다. 지어진 시기는 대략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로 추정되고 있다. 지형적 원인이라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유일의 북향사원지이다. 주변에는 남북교통의 주요인 계림령, 조령이 있어 이와 관련된 유적인 것 같다.

《메모》

## (7) 중원고구려비

황시우

### 1. 개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 고구려가 주로 북방을 공략한 광개토대왕 시대 이후 장수왕 시대에는 남하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한반도 중부까지 영토를 확장한 뒤 현재의 충주 지역에 세웠다.

1979년에 발견되어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었다. 본래는 입석마을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보호각 안에 있었지만, 가까이에 고구려비 전시관을 건축한 뒤 전시관 안으로 원본을 옮겼다.

예전엔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렀는데 명명 당시 비가 있는 장소가 중원군[1]이었기 때문. 현재는 중원군과 충주시가 1995년 도농복합시가 되어 합쳐졌으므로 '충주 고구려비'라고 부른다. 아직까지는 교과서 등에서 '중원 고구려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왔기에 '중원 고구려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충주 고구려비의 가까운 인근에는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 2. 내역

크기는 높이 135 cm/전면 폭 55 cm/좌측면 폭 37 cm이며 1행 23자꼴로 528자가 새겨졌다.

확실한 건립연대는 알 수가 없었다. 아래 전문에서 보듯 비문이 대뜸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 12월 23일이 갑인인 것과 좌측면에 신유년이라고[2] 나온 것을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좌우간에 5세기 경으로 추정되었다.

### 《메모》

## (8) 중앙탑

박연제

국보 6호.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크다. (14.5m) 통일신라 후기 8세기 후반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앙탑은 2개의 기단 위에 7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1917년 탑 보수하면서 6층 몸돌과 기단 밑에서 사리장치와 유물이 발견됐다. 6층 몸돌에서 발견된 거울은 고려시대 것으로 탑 조성 이후 2타 봉안(화장한 유골을 여러 형태의 시설물 안에 안전하게 두는 것)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에 세워져 중앙탑이라고 하지만 사실 통일신라 영토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 원성왕이 신라 땅 기준으로 보폭이 일정하고 똑같은 두 사람을 남북으로 한날 한시에 출발하여 만난 지점에 세운 것이라고 전해진다. 땅의 중앙을 파악하려고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